

2018년 1월 23일, 한림읍 한림1리 한림1리노인복지회관, 송정희 조사.
고정순(여, 1937년생, 한림읍 한림1리)

- 줄거리: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있었다. 하루는 그 사람에게 동네 사람이 거짓말 하나 하고 가라고 하였다. 그는 지금 보리를 베다가 아랫 동네에 멀치가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 가고 있다고 말했다.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도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식구들을 데리고 아랫동네에 갔다. 그런데 가서 보니 거짓말이었다. 돌아오는 길에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으니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했다.

[제보자] 우리 시아바님신디 들은 말인디, 하도 동네 우시게를 잘허는 분이 있어. 계난 이제 그때는 보리덜 다 손으로 빌 때 아니? 호미로, 다 옛날은. 지금은 기계로 비 없주만은. 이제 어떤 할아버지, 동넛 하르방은 풀덜이영 막 아덜이영 돌아단 보릴 막 익어네 한창 비는디, 그 우시게 잘허는 사람이 길로 영 넘어갔어.

계난 길 에염 빛이나네 넘어가간, 그, 보리 비는 하르방이

“야!”

일름 굴으멍

“야, 니, 우, 우시게나, 거짓말을 혼 번 헤동 가라.”

거짓말도 잘허곡, 우시게도 잘허난.

“경 험주.”

경 험 이젠

“아이고, 우린 보리 비단양, 저 아래 멜, 막 들엇젠 헤네 멜 거리레 값우다.”

허난 이제, 그 하르방은 이젠 이 풀덜이영 막 식구라 보리 비단, 아이고, 그땐 멜이 막 귀헛주게. 이제 7찌 고기 엇일 때난.

“아이고, 우리도 혼저 글라. 우리도 멜 거리레 가게, 가게.”

경 험 이젠 그 사람신디 속안 바당엔 간 보난 멜은 하나토 엇고. 경 험 이젠 다 돌아왔어. 돌아오난 또 그 사람이 또 넘어갔어난

“너, 이놈,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,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?”

허난

“무사, 삼춘, 날 굴아 거짓말헤 동 가렌 안 험데가?”

계난 험 말 셔게. 거뿐.(웃음)

- 핵심어: 우스갯소리, 거짓말, 멜(멀치), 바당(바다), 보리, 하르방(할아버지)